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1월 2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22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11. 22.(목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홍석민 사무관(044-203-4042) 조주원 주무관(044-203-4048)

2018년 1~9월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

- '18. 11. 22(목) 배포 -

○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(KITA)를 기초로 **2018년 1~9월 수출 실적**을 분석한 것임

○ 다만, 연간 통계 확정시(2019. 2월)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

신산업 수출 확대 등으로 수출구조 고도화 진전

① 유망 신산업 수출증가율 14.6%로 총 수출증가율(4.7%)을 3배 이상 상회
② 주력 품목별로 고부가가치 세부품목(OLED · SSD · MCO 등) 수출 비중 확대
③ 제조업 부가가치의 원천인 소재 · 부품 수출 13.6% 증가(2,378억불)
④ 4차 산업혁명발 수요 확대로 컴퓨터 수출 27.0% 증가(84억불)
⑤ 신시장 확대에 따라 차세대DP(12.5%) · 고부가합성수지(20.3%) 성장세 완연

1. '18년 1~9월(1~3분기) 누계 수출 주요 특징 및 평가

1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('18.1~9월 +14.6%, 590.0억불)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품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진전

* 유망 신산업 수출액 추이(억불) : ('16) 554.2 → ('17) 736.0 → ('18.1~9월) 590.0

< 「유망 신산업」 개요 >

- 「신산업 민관협의회」 선정('16.12월) 12대 신산업 중 HS코드 신설·지정을 통해 수출 실적 집계 가능한 9개 산업에서 매월 1일 수출입 동향에서 발표하는 '유망 소비재' 제외
- ①전기차, ②로봇, ③바이오헬스, ④항공우주, ⑤에너지신산업(태양광·전기차/ESS용 축전지·스마트미터), ⑥첨단 신소재, ⑦차세대 디스플레이, ⑧차세대 반도체

※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신산업 특성상 현재 HS코드가 미부여되었거나, 범용성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산업 실태조사상의 수출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○ **유망 신산업 수출의 증가율**은 총 수출 증가율('18.1~9월 +4.7%)을 **3배 이상 상회**하는 등 **고속 성장 중**이며 **수출비중**도 **점진적 확대 추세**

* 유망 신산업 수출증감률(%) : ('16) 6.1 → ('17) 32.8 → ('18.1~9월) 14.6
* 유망 신산업 수출비중(%) : ('16) 11.2 → ('17) 12.8 → ('18.1~9월) 13.1

- 품목별로는 총 **8개 품목** 중 **전기차·바이오헬스·첨단신소재·에너지 신산업** 등 **7개 품목**(항공우주 제외) **수출**이 **증가**하여 **대다수 품목 선전**

* 주요품목 수출증감률(%) : (전기차) 66.0, (바이오헬스) 19.4, (첨단신소재) 21.5, (에너지신산업) 8.2

- 지역별로는 **10대 주요지역** 중 **중남미**를 **제외한 9개 주요지역**에서 **수출이 증가**(6개 지역 두 자릿수 증가)하여 **지역별로도 고른 성장**

*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아세안) 19.6, (EU) 31.9, (인도) 70.1, (중동) 23.7

< '18년 1~9월(1~3분기) 「유망 신산업」 수출 실적 (통관기준) **>**

(단위 : 억 달러, %)

구 분	'17년					'18년			
	1Q	2Q	3Q	4Q	연간	1Q	2Q	3Q	1~3Q
수출액	151.3	163.4	199.9	221.4	736.0	204.2	185.8	199.0	590.0
증감률	(20.6)	(19.4)	(29.2)	(37.8)	(27.4)	(35.0)	(13.7)	(0.002)	(14.6)
비중	11.5	11.1	13.2	15.4	12.8	14.1	12.3	13.0	13.1

* '17년 증감률 계산시 태양광 수출실적은 미포함('17년 태양광 코드 전면 신설)

2 **신남방·북방 신흥시장**(아세안·중남미·중동·인도·독립국가연합(CIS))에 대한 **수출이 확대** 추세('18.1~9월 +4.7%)로 **시장 다변화도 개선**

* 남북교역축 신흥시장 수출(억불) : ('16) 144.7 → ('17) 172.0 → ('18.1~9월) 131.1

○ 특히, 유망 신산업 수출의 경우, **인도·유럽연합(EU)·아세안** 등 **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의 주요지역 수출이 크게 성장**('18.1~9월 +19.7%)하고 **수출 비중**도 **증가**('17년 28.4→'18.1~9월 29.8%) 하는 등 **수출 시장 다변화 가속**

* 유망 신산업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인도) 70.1, (EU) 31.9, (아세안) 19.6
* 유망 신산업 남북교역축 신흥시장 수출비중(%) : ('17) 28.4 → ('18.1~9월) 29.8

3 **상세 품목별**(MTI 3단위 기준)로는 **선재·봉강·철근, 반도체, 석유제품, 화장품**(비누·치약 포함), **반도체 제조장비**가 **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**으로 집계 (10억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)

* 세부품목 수출실적('18.1~9월, 억불·전년비%) : (선재·봉강·철근) 12.0(39.4), (반도체) 955.9(38.1), (석유제품) 344.0(34.1), (화장품) 47.4(31.2), (반도체 제조장비) 39.2(29.9)

○ **주력 품목별**로 **고부가가치 세부 품목**(**OLED·SSD·MCO** 등)이 **차지하는 비중**도 **상승세**로 **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화**도 **확대**

* 수출비중 변화('17→'18.1~9월, %) : (OLED/디스플레이) 33.7→39.5, (SSD/컴퓨터) 64.8→70.0, (MCO/반도체) 9.4→13.2
* MCO(Multi-component integrated Circuits, 복합부품직접회로) : MCP에 능동소자가 추가되어, 성능·에너지효율 등 개선 (MCP 대비 보다 고부가가치 품목)

2. 주요 증가 품목 심층 분석

1 **(소재·부품*)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증가**('17년 12.0%, '18.1~9월 13.2%), **역대 최대 수출실적**('18.1~9월 2,378.2억불) 및 **무역흑자 1,000억 달러 달성** (1~9월 누계 기준 **무역흑자 역대 최대치**)

* (소재) 섬유, 화합물·화학제품, 고무·플라스틱제품, 비금속 광물제품, 1차 금속제품
(부품) 금속가공제품, 일반기계부품, 전기장비부품, 전자부품, 정밀기기부품, 수송기계부품
* 역대 1~9월 수출액 상위기록(억불) : (2위) 2,093('17년), (3위) 2,032('14년)
* 1~9월 소재·부품 무역흑자(억 달러) : ('17) 839 → ('18) 1,059 (220억 달러 증가)

○ **(성장 과정)** 소재·부품특별법 제정·시행('01년) 후 **지난 15년간 정책 지원***(對日역조 개선, 선진국 추격 및 핵심품목 상용화 등) **본격화**, 업계의 **국산화** 및 **수출주도형 성장 노력** 등에 힘입어 **소재·부품 산업 성장 기반** 마련 및 **양적·질적 고도화** 등 성과 창출

- '97년 **최초 무역적자→흑자**로 전환, '01년 **최초 세계 수출순위 10위권 진입**(10위) 이후 **세계 5위**('16년)의 **부품 강국**으로 부상

* 일본과 점유율 격차 매년 감소('01년 6.7%p → '16년 1.3%p까지 추격)
* '01→'17년 수출 4.6배, 무역수지 42배↑, 세계 점유율 10→5위(中, 美, 獨, 日, 韓)

○ **(산업 특성)** ①**부가가치 원천**(소재·부품 기술력이 완제품 수준 결정) **산업**, ②**선진국형 기반 산업**(조립·가공→핵심 소재·부품), ③핵심 소재·부품 개발 성공(장기간 투자 소요, 낮은 성공 가능성)시 **시장 지배**가 **가능**한 **독과점 산업**

○ **(최근 수출 증가요인) 글로벌 경기 회복**에 따른 **생산·수요 증가**로 **전자부품**(반도체 등 글로벌 수요 안정적 상승세), **화학제품**(유가·수출단가 상승), **1차금속**(中 등 주요국 건설경기 호황) 중심으로 **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

* 품목별 수출 실적('18.1~9월, 억 달러) : (전자부품) 1,045.4, (화학제품) 374.9, (1차금속) 214.2

○ **(주요품목)** 전자부품('18.1~9월 비중 44.0%), 화학제품(15.8%), 1차금속(9.0%) 등

* 품목별 수출증감률('18.1~9월, %) : (전자부품) 24.7, (화학제품) 13.3, (1차금속) 12.5

○ **(주요 수출지역)** 중국('18.1~9월 비중 32.1%), 아세안(16.3%), 미국(9.9%) 등

* 지역별 수출증감률('18.1~9월, %) : (중국) 19.9, (아세안) 2.9, (미국) 9.5

2 **(컴퓨터)** '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전환된 후, **'15년부터 4년 연속 증가중**으로 '18.1~9월 +27.0% 증가 등 **증가세 점진적 확대**('15년 +0.4% → '16년 8.5% → '17년 9.2% → '18.1~9월 +27.0%) 추세

○ (**성장 과정**) ’00년대 **개인 컴퓨터(PC) 시장의 급격한 확대, 국내기업의 투자 증가** 및 **기술 고도화** 등을 통한 **경쟁력 확보**로 우리 **5대 수출품목**(’00년~’04년 3위~5위)으로 부상 및 **‘04년 역대 최대실적**(171억 달러) 달성

* 연도별 수출순위 : (’00) 3위, (’01) 4위, (’02) 5위, (’03) 4위, (’04) 4위

- **개인 컴퓨터(PC)**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수요 정체로 ‘05년 이후 주춤했으나, 최근 **데이터 센터·클라우드 서버** 등 차세대저장장치(**SSD**) **수요** 확대로 **성장세 지속 중**

* SSD 수출실적(’18.1~9월) : 47.0억불(전년동기대비 +19.5%)

○ (**산업 특성**) ①**기술 집약도**가 **높은 핵심 조립산업**, ②**과거**에는 **개인 컴퓨터(PC) 시장**의 **확장**과 **연계**, ②최근에는 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·사물인터넷(IoT) 등과 관련된 **고성능 차세대저장장치(SSD) 시장 중심**으로 **성장**

* 글로벌 SSD시장 성장률(IDC, %, 출하량 기준) : (’18.1Q) 17.6 → (’18.2Q) 18.1

○ (**최근 수출 증가요인**) **소비자용**(고성능 게이밍 PC)**·기업용**(데이터 센터·클라우드 서버 등) **수요**의 안정적 **확대, 국내 기업**의 **기술경쟁력 강화** 및 **설비투자**로 **차세대저장장이(SSD)** 등을 중심으로 **증가**

○ (**주요품목**) 보조기억장치(SDD 등, ’18.1~9월 비중 56.3%), 전산기록매체(15.0%), 컴퓨터 부품(패널 등, 9.4%) 등

* 품목별 수출증감률(’18.1~9월, %) : (보조기억장치) 19.2, (전산기록매체) 245.6, (컴퓨터부품) △8.1

○ (**주요 수출지역**) 중국(’18.1~9월 비중 29.9%), 미국(23.4%), EU(11.5%) 등

* 지역별 수출증감률(’18.1~9월, %) : (중국) 35.5, (미국) 17.0, (EU) 15.5

3 (**차세대 디스플레이 :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**) ‘15년부터 **4년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**(’15년 +28.5% → ‘16년 24.1% → ’17년 34.4% → ‘18.1~9월 +12.5%) 및 **수출비중 상승세**로, 현 증가세 지속시 **역대 최대실적 달성 가능성**(’18.1~9월 72.5억 달러)

* 연도별 수출비중(%) : (’14) 0.75 → (’15) 1.05 → (’16) 1.38 → (’17) 1.61 → (’18.1~9월) 1.61

○ (**성장 과정**) **기업**의 **선제적인 설비투자** 및 **정부 연구개발(R&D) 지원** 등을 토대로 ‘94년 개발 착수 이후 ’07년 아몰레드(AMOLED) 적용 MP3, ’10년 아몰레드(AMOLED) 적용 스마트폰, ’13년 55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) 텔레비전(TV) 등을 **세계 최초**로 **출시**해 **‘13년 최초 50억 달러 이상 수출 달성** (‘13년 52.6억 달러)

* 한국 OLED 산업 주요역사 : (’94) 최초 OLED 소자 개발 → (’07) 최초 AMOLED MP3 출시 → (’10) 최초 AMOLED 스마트폰 출시 → (’13) 최초 55인치 OLED TV 출시

- 현재, 중소형·대형 OLED 모두 **한국이 세계시장을 장악**(‘18.上 세계 OLED 시장 점유율 : 97.1%) 중으로 향후에도 대형 OLED 등 경쟁력 유지 전망

* 한국의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(‘18.上) : (중소형) 96.8%, (대형) 99.8%

○ (**산업 특성**) ①운용기기 트랜드 변화에 따른 **기술개발** 및 **선제적 투자**가 중요한 **기술·자본집약 산업**, ②설비투자 중 **장비 투자 비중**(약 60%)이 큰 **대규모 장치 산업**, ③LCD에서 어려운 **Flexible·Foldable** 등 기술 구현을 통한 **다양한 제품화 가능 산업**

○ (**최근 수출 증가요인**) 우리 **주력모델 변화**(LCD→OLED) 가운데, **대형 프리미엄 TV 수요 증가**, **스마트폰 OLED 채용 확대** 및 중저가 Rigid OLED→**프리미엄 Flexible OLED 채용 증가**로 수출 호조

* 글로벌 OLED TV 수요(백만대) : ('17.1~9월) 0.8 → ('18.1~9월) 1.6

○ (**주요 수출지역**) 아세안('18.1~9월 비중 58.5%), 중국(34.3%), EU(4.3%) 등

* 지역별 수출증감률('18.1~9월, %) : (아세안) 38.5, (중국) △8.0, (EU) 0.6

4 (**고부가 합성수지***) 유망 신산업 품목인 **첨단신소재**(고부가합성수지·고성능섬유) **세부품목 중 하나**로, **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('17년 15.1%, '18.1~9월 20.3%)로 **견조한 성장세 시현**

* 내열성·내구성·강도 등이 우수한 고성능 플라스틱 원료로 금속 등을 대체하여 자동차·기계·전기전자 부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소재로 활용

○ (**성장 과정**) **석유화학 산업**의 **하위 산업**으로서, 석유화학의 산업구조 고도화, 기술개발(R&D) 등을 통한 **고부가·고기능 소재 생산** 및 **고부가가치화 노력** 등을 통해 성장

- **'07년 최초 10억불 수출**(10.2억불) 돌파, **'14년 역대 최대 실적**(25.1억불) 달성에 이어 **금년 최대 실적** 재차 **경신**('18.1~9월 22.4억불)을 앞두고 있는 등 향후 **연평균 10% 이상 지속 성장** 예상

○ (**산업 특성**) ①장기간·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**자본집약적 장치산업**, ②**전·후방 산업**(자동차·전자 등)에 **광범위한 파급효과**를 미치는 기간산업

○ (**최근 수출 증가요인**) **유가** 및 **수출단가 상승**, **글로별 제조업 경기 호조** 등에 따른 **수요 확대** 등 영향으로 **수출 성장세**

○ (**주요품목**) 폴리카보네이트('18.1~9월 비중 62.6%), 폴리옥시프로필렌(21.0%), 폴리아세탈수지(10.9%) 등

* 품목별 수출증감률('18.1~9월, %) : (폴리카보네이트) 21.6, (폴리옥시프로필렌) 8.1, (폴리아세탈수지) 30.7

○ (**주요 수출지역**) 중국('18.1~9월 비중 34.0%), 아세안(11.4%), EU(9.6%) 등

* 지역별 수출증감률('18.1~9월, %) : (중국) 15.5, (아세안) 18.7, (EU) 31.3

3. 향후 계획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김선민 무역투자실장**은 "미·중 무역갈등 장기화,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우리 **전체 수출**이 **증가세**를 보이며, **역대 최단기간 수출 5천억불**(10.29일) 및 **무역 1조불 달성**(11.16일)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○ "특히, **수출 품목**의 **다변화**와 **고부가가치화 확대** 등 **수출 구조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**이 있었다는 점이 **고무적**이다"고 언급하면서,

○ 또한, "향후에도 신산업 등 **수출산업의 고도화**를 통해 **수출의 부가가치를 제고**하고, **4차 산업혁명**에 대응한 **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창출**할 수 있도록 **정책적 노력도 경주할 계획**"이라고 밝혔다.

※ **주요 품목·지역별 특징 분석 등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홍석민 사무관(☎ 044-203-40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 첨 | **'18년 1~9월(1~3분기) 수출 동향 세부 내용**

< 총 괄 >

□ (전체) **'18.1～9월(1～3분기) 총 수출**은 **전년동기 대비 4.7% 증가**한 **4,503.3억불**로 **사상 최대 수출실적 기록**

* 역대 1～9월 수출액 상위기록(억불) : (2위) 4,302('17년), (3위) 4,250('14년)

○ '16.4분기부터 **8분기 연속 증가**하는 등 **분기별 수출 증가세**도 **지속**

* 수출증감률(%) : ('17.1Q)14.6→(2Q)16.7→(3Q) 24.0→(4Q) 8.4→('18.1Q) 9.8→(2Q) 3.1→(3Q) 1.7

< '18년 1～9월(1～3분기) 수출 실적 (통관기준) **>**

(단위 : 억 달러, %)

구 분	'17년					'18년			
	1Q	2Q	3Q	4Q	연간	1Q	2Q	3Q	1～3Q
수출액	1,320.6	1,470.4	1,510.5	1,435.4	5,736.9	1,450.7	1,516.6	1,535.8	4,503.1
증감률	(14.6)	(16.7)	(24.0)	(8.4)	(15.8)	(9.8)	(3.1)	(1.7)	(4.7)

○ 품목별로는 **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·일반기계·석유화학·석유제품** 등 **6개 품목**의 **수출이 증가**하여 **전체 수출 증가 견인**

* 주요품목 수출증감률(%) : (반도체) 38.1, (일반기계) 9.1, (석유화학) 12.4, (석유제품) 33.8

○ 지역별로는 **10대 주요지역 중 중국·미국·아세안·EU** 등 **7개 지역**의 **수출이 증가**하여, **지역별로 고른 수출 성장 시현**

*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중국) 19.9, (아세안) 3.2, (미국) 0.5, (EU) 0.4

< 품목별 분석 >

□ (**주력품목**) 13대 품목 중 **반도체·일반기계·석유화학·석유제품** 등 **6개 품목 수출**이 **증가**하였고, **4개**(반도체·석유제품·석유화학·컴퓨터)는 **두 자릿수 증가**

* 수출액/증감률('18.1～9월, 억불·%) : (반도체) 955.9(38.1), (일반기계) 394.6(9.1), (석유화학) 377.2(12.4), (석유제품) 344.0(34.1), (자동차) 292.4(△8.0), (철강) 260.8(△2.6), (디스플레이) 183.3(△10.9), (차부품) 172.3(△3.2), (선박) 145.2(△59.2), (무선통신기기) 131.3(△19.4), (섬유) 105.2(1.7), (컴퓨터) 84.4(27.0), (가전) 54.3(△21.1)

○ ①**반도체**는 **역대 최대 수출실적**(955.9억불)을 기록(10대 주요지역 모두 증가) 하는 등 **8분기 연속 견조한 수출 성장세**, ②**일반기계**도 **사상**

최대 실적(394.6억불) **달성** 및 **수출 비중 상승** (2위 수출 품목)

* 반도체 분기별 수출증감률(%) : ('16.4Q) 11.4 → ('17.1Q) 44.7 → (2Q) 54.0 → (3Q) 61.7 → (4Q) 66.5 → ('18.1Q) 45.9 → (2Q) 40.2 → (3Q) 30.3
* 일반기계 수출비중(%) : ('17) 8.5 → ('18.1~9월) 8.8

○ ①**석유화학**도 **역대 최대 수출실적**(377.2억불) 기록(10대 주요지역 모두 증가), ②**석유제품**도 **2년 연속 30% 이상 성장**('17년 32.4%, '18.1~9월 34.1%) 및 **7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로 **안정적 성장세 지속**

* 석유화학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중국) 5.4, (아세안) 11.2, (EU) 15.6
* 석유제품 분기별 수출증가율(%) : ('17.1Q) 66.6 → (2Q) 11.9 → (3Q) 29.7 → (4Q) 29.8 → ('18.1Q) 15.3 → (2Q) 55.7 → (3Q) 33.9

○ 컴퓨터는 **4년 연속**으로 **수출**('18.1~9월 +27.0%)과 **수출 비중**이 **확대**('17년 1.6 → '18.1~9월 1.9%)되어 '08년 이후 **10년만에 수출 100억불 회복 전망**

* 컴퓨터 수출증가율(%) : ('15) 0.4 → ('16) 8.5 → ('17) 9.2 → ('18.1~9월) 27.0

□ **(유망 신산업) 8개 품목** 중 **전기차·바이오헬스·첨단신소재** 등 **7개 품목** (항공우주 제외) **수출**이 **증가**(5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)하여 **대다수 품목 선전**

* 수출액/증감률('18.1~9월, 억불·%) : (차세대반도체) 365.4(15.6), (차세대DP) 72.5(12.5), (에너지신산업) 51.4(8.2), (바이오헬스) 36.8(19.4), (첨단신소재) 24.8(21.5), (항공우주) 23.6(△2.3), (전기차) 10.2(66.0), (로봇) 5.2(6.8)

○ ①**전기차**는 유망 신산업 품목 중 **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**(+66.0%)으로 **최초 10억불 수출 돌파**('17년 9.0억불), ②**바이오헬스**는 **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로, 호조 지속시 역대 최대 실적 **달성 기대** ('17년 45.3억불)

* 전기차 수출 추이(억불) : ('16) 3.2 → ('17) 9.0 → ('18.1~9월) 10.2
* 바이오헬스 수출 증감률(%) : ('14) 14.4 → ('15) 17.9 → ('16) 13.1 → ('17) 13.6 → ('18.1~9월) 19.4

○ ①**첨단신소재·차세대반도체**는 10대 주요지역 중 **9개 지역에서 증가**, ②세부품목인 전기차/ESS 등 **축전지 수출**의 **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 등에 힘입어 **에너지신산업**도 **3년 연속 안정적인 증가세 시현**

* 첨단신소재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중국) 15.0, (아세안) 17.7, (EU) 37.6
* 차세대반도체 주요지역 수출증감률(%) : (중국) 9.8, (아세안) 16.7, (미국) 111.5
* 축전지 수출증감률(%) : ('16) 17.9 → ('17) 51.1 → ('18.1~9월) 21.8
* 에너지신산업 수출증감률 추이(%) : ('16) 17.2 → ('17) 127.1 → ('18.1~9월) 8.2

< 지역별 분석 >

□ (전체) **10대 주요지역 중 중국·미국·아세안·EU 등 7개 지역**의 **수출이 증가**(2개 지역 두 자릿 수 증가)하여, **지역별로 고른 수출 성장 시현**

* 수출액/증감률('18.1～9월, 억불·%) : (중국) 1,219.1(19.9), (아세안) 735.1(3.2), (미국) 524.6(0.5), (EU) 416.8(0.4), (베트남) 357.6(1.0), (일본) 226.3(13.1), (중남미) 210.4(△3.0), (중동) 170.0(△7.8), (인도) 117.7(△1.0), (CIS) 77.6(7.4)

○ ①**아세안·베트남**은 **역대 1위 수출실적**(아 735.1억불, 베 357.6억불)을 **달성**하였고, ②**EU**는 13대 주요 품목 중 **7개 품목**(5개 두 자릿수 이상 증가) **수출 선전**, ③**인도**는 13대 주력 품목 중 **10개 품목**(9개 두 자릿수 이상) **수출 증가**

* EU 주요품목 수출증가율(%) : (자동차) 4.9, (일반기계) 20.7, (철강) 31.5
* 인도 주요품목 수출증가율(%) : (석유화학) 24.8, (철강) 25.2, (일반기계) 51.5

○ ①**일본**은 **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('17년 10.1%, '18.1～9월 13.2%) 및 **수출 비중 상승세**('14년 이후 5%대 재진입), ②**CIS**는 **3년 연속 수출 비중 증가**('17년 1.6 → '18.1～9월 1.7%)

* 일본 수출비중 추이(%) : ('15) 4.9 → ('16) 4.9 → ('17) 4.7 → ('18.1～9월) 5.0
* CIS 수출비중 추이(%) : ('15) 1.3 → ('16) 1.4 → ('17) 1.6 → ('18.1～9월) 1.7

□ **(유망 신산업)** 10대 주요지역 중 **중남미**를 **제외**하고 **9개 지역의 수출 증가** (6개 지역 모두 두 자릿수 증가)

* 수출액/증감률('18.1～9월, 억불·%) : (중국) 145.7(4.6), (아세안) 143.6(19.6), (베트남) 101.4(31.7), (EU) 50.8(31.9), (미국) 32.6(8.1), (중남미) 13.7(△2.3), (일본) 13.5(5.6), (인도) 9.3(70.1), (중동) 7.9(23.7), (CIS) 1.6(21.9)

○ ①**베트남 증가세**(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) 등에 힘입어 **아세안 수출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, ②**EU · 인도 · 중동**은 **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**

* 아세안 수출 증감률(%) : ('16) 20.4. → ('17) 48.8 → ('18.1～9월) 19.6
* 주요 국가별 수출증감률('17→'18.1~9월 %) : (EU) 54.2→31.8, (인도) 28.7→70.1, (중동) 64.6→23.7

○ ①**EU**는 8개 품목 중 **7개, 중남미 · CIS**는 **6개**가 **증가**하여 **품목별 고른 성장이 뚜렷**한 지역으로, 특히 ②**EU**(6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및 비중 확대 추세) **· 일본**(4년 연속 증가) 등 **선진국 시장에서 안정적 호조세**

* EU 수출증감률(%) : ('13) 17.6→('14) 29.7→('15) 28.8→('16) 26.7→('17) 54.2→('18.1~9월) 31.9
* 일본 수출증감률(%) : ('15) 2.7 → ('16) 0.4 → ('17) 11.9 → ('18.1～9월) 5.6